

현대중공업(주), 모리셔스에 대형 디젤 발전소 준공

현대중공업(대표 : 조충휘)은 최근 아프리카 모리셔스의 60MW급 디젤 발전소를 완공했다고 밝혔다.

지난 '98년 일본 및 유럽 등의 세계적인 발전설비 업체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모리셔스 전력청(CEB)로부터 각각 30MW급 4호기와 5호기 2기를 8천만불에 수주, 작년 10월 4호기 이후 이번에 5호기를 완공해 총 60MW급 디젤 발전소 공사를 마친 것이다.

현대중공업이 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진출해 수행한 이번 공사는 세계적인 설계 및 감리업체인 프랑스 EDF사의 엄격한 감리속에서 진행된 가운데에서도, 18개월의 예정 공기보다 조기에 완공함으로써 기술 능력과 공사 수행 능력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고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이번 공사의 성공적인 완공으로 아프리카 디젤 발전소 건설의 추가 수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95년 이스라엘 60MW급 디젤 발전소를 건설한 것을 비롯 말레이시아, 인도, 대만, 멕시코 등 해외에 20여기, 북제주 내연발전소, 롯데 잠실 열병합 발전소, 흑산도 발전소 등 국내 25기의 디젤 발전설비를 공급했으며, 작년에 단일 디젤 발전소로서는 세계 최대 규모인 200MW급 디젤 발전소를 완공하는 등 세계 최대의 발전설비 업체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주), “SERVO GUN” 부착한 로봇 제어기 개발

현대중공업(대표 : 조충휘)은 최근 차세대 로봇 시장의 주력제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보 건(SERVO GUN) 부착 로봇 제어기를 개발하고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조립 용접 장치인 서보 건은 기존의 에어 건(AIR GUN)과 비교할 때 용접 품질향상과 설비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작업환경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

공기 압력을 이용한 에어 건은 용접시 발생하는

진동과 용접물의 두께에 따른 용접 상태의 수동 설정 등으로 용접의 품질향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모터 동력을 이용한 서보 건은 용접물에 따라 용접을 보다 정밀하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각종 부대 설비가 필요한 에어 건에 비해 서보 건은 추가 설비를 최소화 할 수 있어 작업환경 개선은 물론 각종 설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잇점으로 차세대 로봇

시장의 주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서버 건 기능이 장착된 로봇을 조절하는 핵심 기술은 제어기이다. 그동안 선진 로봇 업체에서만 개발, 사용해 오던 것을 현대중공업이 자체 기술 개발에 성공, 이번에 양산 체제에 본격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 제어기는 현재 경기도 화성 기아자동차 오퍼

마 생산라인에 채택 사용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 공급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은 차세대 로봇 시장의 주력제품으로 떠오르고 있는 서버 건 제어 기능의 국산화 성공으로 향후 이 분야에서의 세계 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와 자동화 부문의 국내외 경쟁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G전선(주), 중국형 증압펌프 개발

LG전선(대표 : 권문구)이 중국 펌프시장을 겨냥해 중국형 증압펌프를 개발, 출시했다.

중국형 증압펌프는 이 회사가 지난해 10월 현지 법인 LG-CPO 설립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한 이후 올 3월부터 개발에 들어간 제품이다.

중국 펌프시장은 현재 증압펌프(가압용 펌프)가 전체 소형펌프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소형업체들의 난립상태로 품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이와 함께 이미 진출한 유럽 제품의 경우도 양수량이 부족하고 이물질에 의해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구매 기피 요인이 많은 입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LG전선은 이와 관련, 중국형 증압펌프 개발에 착수해 동급 최대의 양수량·저소음 및 이물질에 강한 제품을 공급케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펌프는 특히 양수량이 부족한 상태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용을 해도 수압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데다 배관사이즈가 현지제품들과 같고 유럽제품들과도 부품 호환이 가능하며 볼트 체결구조를 채택해 전부품의 교환을 할 수 있다는게 특징이다.

LG전선측은 이같은 증압펌프의 출시로 매출 목표액을 올해 60M USD 2만대, 2001년 300M USD 10만대, 2002년 450M USD 15만대로 잡고 있다.

LG산전(주), '단상 전력량계 부품' 말레이시아 수출

LG산전(대표 : 손기락)은 최근 말레이시아 단상 전력량계 제조업체인 미사(MISA)사에 3년간 6백만불 상당의 단상 전력량계 부품을 공급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상 전력량계는 주로 가정에서 쓴 전력량을 요금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수치로 나타내는 기기로

LG산전은 지난 '92년에 미사사와 기술계약 협력 관계를 맺고 단상 전력량계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92년부터 현재까지 미사사에 1천만불 상당의 단상 전력량계 부품을 공급하였다.

LG산전은 향후에도 말레이시아 단상 전력량계 시장에서 20%의 시장 점유율을 점하고 있는 미사사에 1천만불 상당의 단상 전력량계 부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산전(주), Black & Decker사에 1천2백만불 상당 고속절단기 공급계약

LG산전(대표 : 손기락)은 최근 전세계 전동공구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미국 블랙앤데커(Black & Decker)사와 3년간 1천2백만불 상당의 고속절단기(모델명 : DW870)를 공급기로 합의하였다.

LG산전이 이번에 공급할 고속절단기는 특수 열처리된 정밀 기어(Gear)를 채택, 내구성을 높은 제품으로 주로 산업현장에서 강재(鋼材)를 절단하는데 사용되며, LG산전은 이번 계약으로 고속절단기를 미주지역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LG산전은 또한,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고속절단기 신제품을 하반기에 출시, 향후 블랙앤데커사

와 추가 공급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산전은 이번 블랙앤데커사와의 전동공구 공급계약으로 미주시장에서 LG산전 고속절단기 품질을 인정 받음은 물론 전동공구 수출이 급신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 전동공구 예상 수출을 2천만불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LG산전은 올해 10만대 규모의 국내 고속절단기시장에서도 품질과 신뢰성 확보로 지난해 대비 60% 이상 신장한 4만대 이상의 고속절단기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G산전(주), 초소형 인버터 '스타버트-iG5' 시리즈 개발

LG산전(대표 : 손기락)은 최근 수출전략형 초소형 인버터인 스타버트-iG5 시리즈 9기종(1마력~5마력 : 200V/400V 계열) 개발을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국내·외 시장에 본격 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약 7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개발한 스타버트-iG5 시리즈는 기존의 스타버트-iG5 시리

즈에 비해 제품 크기를 50% 정도로 대폭 축소하였으며, RS232/RS485 통신기능의 기본 장착으로 컴퓨터, PLC(논리공정제어장치) 등과 연결하여 원거리 제어가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최적의 가감속 기능 내장으로 사용자가 수동으로 가감속을 설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과전류

및 과전압 트립(Trip)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배선을 잘못해서 생길 수 있는 인버터 고장을 방지하는 오(誤)배선 방지 기능을 갖춰 제품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PID(비례/적분/미분)제어 기능을 갖춰 플랜트(Plant) 또

는 프로세스(유량, 온도, 압력 등) 제어가 가능토록 하였다.

LG산전은 이번 초소형 인버터 신제품만으로 내년 약 200억원의 매출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주), 근거리통신망용 UTP케이블 시판

대한전선(대표 : 유채준)은 음성 데이터 동화상 등 멀티미디어 전송에 사용되는 근거리통신망(LAN)용 UTP(Unshielded Twisted Pair) 케이블을 본격 시판한다.

이 회사는 최근 한국표준협회에서 근거리통신망용 UTP케이블 전규격(2페어~600페어)에 대해 한국산업규격(KS)표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대한전선이 KS인증을 획득한 제품은 UTP케이블 등급에서 카테고리3와 카테고리5급이다. 카테고리3은 최대 10Mbps까지 음성과 데이터의 전송에 사용할 수 있고 카테고리5는 100Mbps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대한전선측은 “최근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에 사용되는 차세대 동케이블 부문에서의 KS인증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시판에 들어간 UTP케이블은 충분한 시험기간을 거쳐 생산한 제품이어서 세계 수준급이다”고 밝혔다.

대한전선은 이번 KS인증 획득을 계기로 국내시장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이미 UL 인증을 획득한 카테고리5를 칠레, 남아공 수출에 이어 세계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 회사는 또 UTP 카테고리5급 4P, 25P에 대한 UL인증을 계기로 현재 카테고리6에 대해서도 UL인증 획득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한전선(주), 대만에 초고압 케이블 첫 수출

대한전선(대표 : 유채준)이 대만에 161kV 초고압 O.F(Oil Field) 지중케이블과 접속자재를 수출한다.

이 회사는 최근 대만전력청(TPC)이 실시한 1,100

만달러 규모의 초고압지중케이블 입찰에서 프랑스 알카텔, 일본 스미토모 후루가와 후지쿠라 등 세계적인 전선업체들과 경쟁,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한전선이 대만전력청에 납품하게 되는 161kV 초고압 O.F 지중케이블은 국내에서는 처음 공급되는 것으로, 케이블과 접속자재 납기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까지다.

특히 타이페이 시내와 루강 정선청상 메이산 등에 포설될 초고압 지중선로 공사에는 대한전선측이 감리까지 맡게 된다.

대한전선은 또 이번 수주를 계기로 대만 케이블 시장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돼 앞으로 발주가 예상되는 161kV O.F 및 XLPE를 비롯

345kV급 초고압케이블 국제입찰에서도 추가물량이 기대되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로써 올해 들어 말레이시아에 2,700만달러 규모를 비롯, 아랍에미레이트 1,500만달러, 이라크 1,500만달러 등 초고압 관련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해 오고 있다.

한편 대한전선은 올해 지난해 초고압케이블 부문에서의 1,301억원 매출 대비 20% 이상 증가된 1,600억원 규모의 매출실적을 잡고 있다.

(주)서진정밀, 최신식 금형공장 건설 추진

정밀금형 및 플라스틱사출전문생산 업체인 (주)서진정밀(대표 : 장재산)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 산업단지에서 초정밀 금형 및 플라스틱사출을 생산할 수 있는 '최신식 금형공장' 기공식을 가졌다.

이 회사 의정부공장은 대지 1,400평, 건평 1,400평 규모로서 최신식 생산라인이 도입된 생산라인 동과 연구소, 사무실 등 3개동이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이 가운데 생산라인 건물은 미래의 최첨단 금형설비인 CAD/CAM SYSTEM과 전공정 CNC 공작기계가 설치돼, 초정밀 금형과 플라스틱사출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중전기기·전기·전자·정보통신기기·반도체·가전제품 등의 정밀금형과 플라스틱

사출을 전문적으로 생산, 국내외 수요처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ISO 9001 인증을 획득해 완벽한 품질관리와 초정밀 금형과 플라스틱사출 생산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 국내 금형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주)서진정밀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의정부공장은 21세기 산업 고도화 추세에 발맞추어 초정밀금형 및 플라스틱사출을 생산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미래형 초금형과 플라스틱사출제품'을 연구·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